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5대 기업그룹의 회사채 발행 제한

- (회사채 집중 현황) 98년 들어 9월말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약 34조 원인데, 이중 5대 그룹의 발행분이 약 26조 8,500억 원으로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
- (정부의 정책 의도)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 제한은 소수 대기업 이외의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
 - 중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는 그 자체의 자금조달 기능 뿐 아니라, 기업 신용도 향상으로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
 -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되면 자금 조달을 위하여 한계사업이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
- 구체적인 제한 방법
 - 投信社의 동일 기업 발행 유가증권 편입한도(10%)의 하향 조정
 - 기업의 부채비율에 연계시켜 회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
 - 중견·중소기업 발행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편입
 - 자기자본의 4배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채 발행한도 축소
- (문제 제기)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제한은 회사채 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며 여타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
 - 현재 중견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것은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보증과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. 따라서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제한은 회사채 시장을 축소·왜곡시킬 수 있음
 -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·중소기업들은 간접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
 - 회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들이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중견·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